春秋 - 1942. 07. 01

哲人이 보는 理想

安浩相

孔子는 말하기를『가는者 물과 같이 밤낮 없이 흐르도다』하였으며 또 希臘哲學者 헤라클리토스는 『모든것은 흐른다』고 말하였다. 天地에 모든 것은 永遠히 흘러가는것이요 결코 머물러있는것은 아니다. 가는者가 있어야 오는者가 있을것이며 또 오는者가 있는데라야만 비로소가는자가 있는法이다. 晝夜의 代行과 春夏秋冬의 運行은 모두가 相距相來의 自然法則이요 盈枯盛賽의 必然한 理이다. 太陽의 光明이 萬生에 利롭지만은 靜夜의 暗色은다 또한 萬生에 必要한것이다. 뿐만 아니라 盛盈의 春雨이 있어야 되려니와 賽枯의 秋風이 또한 없어서는 아니된다. 이와같이 明暗盛塞가 끝없이 서로 變하며 바꾸임으로 因하여 大自然의 現象界가 永遠히 알게된다.

모든것은 變하며 흘러가지아니하면 아니된다. 만일 물이 蒸氣로 變하면 벼낟(禾種子)이 벼대로 變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다른 벼를 生産하지 못할것이다. 뿐만아니라 맑은시내 (開川)에 흐르는 물을 돌때에 그것은 잠시도 끈처 머물지아니 하고 오직흐르는 까닭에 그물은 항상 깨끗하며 新鮮하다. 그러나 만일 그 시내물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한자리에만 머물고있을때에는 그 물은 새물이요 산물이 될수없고 도리어 죽고 썩은 물이 될것이다. 萬物은 自己가 變하며 바꾸이는데서비로소 自己의 生命과 發展이 있을수있다.

消長變易의 이 不變의 鐵則은 비단 自然界에 對해서만이 아니라 다시 人間社會에 對해서까지 絶對妥當性을 갖고 있다. 過去의 人類歷史는 이 消長變易의 公道를 如實히 보여준다. 萬代不滅을 꿈꾸면서 萬里長城을 쌓든 秦始皇도 三代를 못가서 亡하였으며 또 神과 같이 오래가기를 圓하던 로마帝國도 畢境은 滅亡의 길을 밟었었다. 人類史上에 나타난 모든 國家들은 그들의 强弱의 差異를不拘하고 興亡의 運命線을 다가치 超越하지 못하였었다. 個人의 成敗와 國家의 興亡이란 그自體는 결코 自然의偶然한 現象도 아닐뿐더러 또 神의故意도 아니요 오직人間의 理想을 따라 되는것이다.

興亡이 交代하며 强弱이 變易함은 萬代不變의 鐵則이다. 人間은 自己의 現在의 不幸과 悲運에 浪漫과 悲觀을할것이아니라 항상 不屈의 精神과 不敗意

志로 自己의 참된 理想의 目的點만을 向하여 一路猛進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苦痛의 悲哀끝에 幸福의 우슴이 온다는것은 결코 一個人의 漠然한 空想도 아닐뿐더러 또 不幸者의 希望的觀察도 아니요 오직 嚴密한 歷史的 法則과 또 確然한 現實的事實들의 綜合으로서된 一般結論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와같이 天地안에 모든것이 變하며 바꾸이는것은 누구든지잘아는바이다.

自然物의 盈枯盛塞는 單純이 自然의 힘으로써 되는것이지만은 人間事의 興亡成敗는 항상 人間의 힘으로써 되는것이다. 人間의 一個體가 大宇宙의 比較하면 적기가 限이없고 또 人生의 一生을 無窮時에 比較하면 짧기가 끝이 없다. 비록 人生이 이와같이 極히 적고도 짧은存在이지마는 그의 힘과 努力의 結果는 도리어 無限이 큰것이다. 한 社會를 餘地없이 亡처주는것도 人間이려니와 또다시 새歷史를 創造함도 그역시 人間이다. 이와 같이 人間이 社會와 歷史를 부뜨며 맨들게되는 그根本原因은 아무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時代와 그社會에 生存한民衆들의 理想 如何에 있는것이다. 큰 理想을 가진 個人은 크게되며 적은 理想을 가진 個人은 적게되듯이 偉大한 理想을가진 社會는 偉大케되며 또퇴폐한 理想을 가진 社會는 반드시 퇴폐하고 마는것이다.

二

우리는 冷靜한 理性의 批判으로서 우리의 참된 理想을 새울것이며 또 純正한 良心의 反省으로서 이 理想을 爲하여 살며 죽어야 될것이다. 참된 理想이 없는데선 참된行動이 없을것이다. 現今의 우리들은 理想이 너무나 貧弱한 感이 적지 아니하다. 이 現實에 도취된 人間들은 自己들이 理想을 못가었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도리어 理想이 있는 사람다려 어리석기짝이 없다고 할뿐이다 높은 남게는 바람이 많다듯이 높은 理想에는 困難이 또한 많은 法이다. 바람을 겁내서 크는남글 못크게하며 또 苦難을 못견대서 가진 理想을 버리는것은 그얼마나 無識하며 卑怯한 行動이랴.

바람에 부다처 뿌러칠망정 크는 나무를 제대로 크게하며 또 現在의 苦難이 많을지언정 가진 理想을 最後까 지 지켜야만될것이다.

無知와 利害만이 支配하고있는 이 現實에서 높은 理想을 갖고 살기가 甚히 어려운것은 더말할여지가 없다. 그러나 他人의 無知를 개의하지 말며 또 自己의 一時的 利害를 돌보지 말고 오직 높은 理想을 갖고사는것이 生다운生일것이다. 옛 時調에서

까마귀 싸우는 곳에
白露야 가지마라

성낸까마귀
흰 빛을 새우나니라
한말과 같이 現實은 우리들로 하여금 理想을 갖게못할뿐아니라 도리어 갖은 理想까지 내버리게스리하고있다.
朝變夕改하는 이 環境에서 高尙한 理想을 갖는다는것이 至難한 일이다. 그러나 이 難關을 突破하고 못갖은 理想을 갖으려하며 또 갖은 理想을 實現하려는것이 人間의高貴한 精神이다.
高尙한 理想을 갖지 못한대對해선 무론 外的條件關係가 크기도 하지마는 結局운 自己自身에있는것이다. 自己의 잘되고 잘못되는것을 오직 外的條件에만 돌려보내는것은 責任轉嫁로서 곧 自己自身의 모욕임에 틀님이없다. 만일 우리人間이 自己가 갖인 高貴한 理想을 自己의 힘으로서 지키지 못하고 단지 環境에만 依賴하며 마껴버린다면 우리는 人間으로서 何等의 價値가 없는 存在일것이다. 環境이 우리의 理想을 左右하지말고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理想을 따라 環境을 맨들어야만 되는것이다. 純祖로운 環境에서 잘되며 成功하는것은 누구나 하기쉬운것이나 不幸한 環境에서 成功하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成功의 價値와 人格의 高貴性은 저첫째 境遇에서 보다 오로지 이 둘째 境遇에 더있는것이다.

三

집이 富者인 때에는 惡兄과 賢弟것 區別없이 다 같은 人間으로 나타나며 나라가(國家)太平할 때에는 忠臣과奸臣을 區別하기 어려웁다. 그러나 만일 家勢가 한번 기우러져 敗家의 運에 빠질 때는 惡兄賢弟의 區別이 分明하게 드러나며 또 國運이 蹇盡하여 亡國의 時期가 될때에는 忠臣과 奸臣의 本性이 確然이 드러난다. 그럼으로 우리는 한 個人의 眞實한 價値의 有無와 人格의 高下는 順調로운 環境과 無事泰平時에서가 아니라 항상 惡한 環境과 多事多難時에라야만 비로서 잘 알수 있다. 大地에 봄이오면은 붉고 누른 꽃과 푸른 닢이 서로 다투어가면서피기 시작한다. 우리는 따스한 봄바람에 요란이 핀 꽃들과 무더운 여름날에 우거진 綠陰을 볼때에는 꽃이면 다꽃이요 닢이면 다 닢인줄로만 알게되여 꽃과 꽃사이와 또 닢과닢사이에 何等貴賤의 差別을 發見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루밤 가을 바람에 서리빨이 칠때에는 꽃과꽃사이와 닢과 닢사이에는 문득 天壤의 差異를 보이게 된다.
秋霜의 號令앞에선 天山萬野의 뭇花草는 마르고 떨어져 悲慘히 구덩에 빠저있지마는 울밑에 외로히핀 黃菊은 霜風에도 더빛나서 三春의 桃李를 無色케하며 또 바위우에蒼松은 雪寒에도 울울하게 푸르러 五月의 綠陰을 無視할뿐

이다.

사람은 高尙한 理想을 갖고 언제나 自己의 主義主張이 있어야만 된다. 남이 웃는다고 따라 웃지말것이며 또남이 운다고 따라 울어서는 아니 된다. 비록 天人萬人이 웃드라도 웃을 곳이아니어든 웃지말것이며 또天人萬人이울드라도 울때가 아니어든 울지말것이다. 菊花를 왜좋다하며 桂樹花를 왜좋다하는가. 菊花의 꽃송이가 桃花의 그것보다 더아름다 운것이아니며 또 桂樹의 꽃가지가 李花의 그것보다 더곱지아니하련마는. 그러나 桂花를 李花보다또 菊花를 桃花보다 좋다는것은 꽃이 아름다워서가아니라 오히려 桂花의 性質이 本花의 그것보다 獨特한까닭이다. 三春에 어느 꽃이 못피며 九秋에 어느닢이 아니떨어지리오? 그러나 桂樹는 그와 달러 三春에 桃花는 滿發하되 저는 아직 피지아니하며 九秋에 百花는 다 떨어지되 桂樹는 홀로 피어있다. 봄날에 꽃핀 桃李가 꽃없은 桂樹를 얼마나 비웃으리오마는 桂樹는 도리어 桃李의 十日命을 불상히 여길뿐이다. 그리하여 옛時에 일렀으되

問春桂(봄桂樹야 너에게 묻노니)
桃李正房華(복송아 오얏은 正히 꼿다웁고 빛나도다)
年光隨處滿(봄빛이 곳을 따라 찾는데)
何事獨無花(무슨 일로 너홀로 꽃이 없느요)

春桂答(桂樹答하되)
春花巨能久(봄꽃이 어찌 오래가리)
風箱搖落時(바람서리 搖落할 때)
獨修君知否(나홀로 빼남을 그대가 아느냐 모르느냐).

四

꽃이라고 다 꽃이 아니며 닢이라고 다 닢이 아니다. 꽃가운데 꽃이있으며 닢 가운데 닢이 있듯이 사람이라고 다사람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또한 사람이 있다. 사람마다 各各 얼골이 다르듯이 사람의 質과 品이 또한 千差萬別이다. 사람의 外形이 서로 다름은 肉體의 差異로써 되는것이지마는 사람의 質과 品의 差異는 사람마다 理想과 또 그것의 實質의 程度가 다른 까닭이다. 우리가 어떠한 一個人의 價値의 有無와 人格의 高下를 許할 때에 그사람의 知識과 用心과 또 行動을 보고 하는것이나 그 根本에 드러가선 항상 그사람의 理想과 또 그것의 實現程度如何에 따라 하게된다. 아무리 知識이 많다할지라도 理想이 낮을적에는 그많은 知識이 何等의 必要가 없을뿐더러 도리어 害惡만을 끼칠것이다. 뿐만아니라 참된 理想의 前提가없이는 어진 마음을 잘 쓸수가 없으며 또 착한 行動을 할 수가 없으리라. 理想은 人間의 참된 行動

의 推進力인 同時에 人格의 尺度까지 되는것이다.

높은 理想을 爲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環境의 支配를 받지 않고 항상 自己의 獨自的立場에서 行動한다. 그리하여 그는 비록 好運의 環境일지나 放縱함이 없으며 또 비록 惡運의 環境일지나 墮落됨이 없이 오직 自己의 理想의 實現만을 爲하여 싸울뿐이다. 人類歷史에 偉大한人物들은 모두가 人類와 또 그로因하야 自己의 理想을 爲하야 살며 죽었었다. 참된 理想이 없는者는 自己의 生活과行動에 中心을 잃어버려 이 바람에 이리휫뜩 저 바람에 저리휫뜩하여 指向없이 흔들려 결국은 自身의 滅亡밖에 더 불러오지 못하게된다. 뿐만아니라. 그와같이 中心이 없는者는 小人이요 또 奸邪한者라는 이름 밖에 더 얻을수는 없다.

高尙한 理想이 없이는 高尙한 人格者가될수 없고 理想의 實現이 없이는 歷史的偉人이 될수 없다. 大聖인 千秋萬代에 永遠이 빛나게됨은 오직 그들의 大理想과 또그것의 大實現 그것 때문이다. 釋迦와 孔子와 예수는우리人間으로서 가질수있는 最大의 理想을 가졌으며 또 그것을 最大限으로 實現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如天合一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였었다. 大人은 大理想으로 부터되며 小人은 小理想으로 부터 된다. 私慾을떠나 大義를 理想으로하는 者는 큰 人格者임에 反하여 大義를 잊어버리고 私慾에만 눈밝히는 者는 奸邪한 小人만이되고만다. 아무리小人이 巧妙한 말과 邪惡한꾀로써 自己의 本色을 감추려하지만은 우리의 理性의 눈에는 그 本色이 다나타나며 또아무리 大人이 말없이 잠죽하여 自己의 理想을 말하지 않지마는 우리의 理性의 귀에는 그말이 다 들어오게된다. 우리는 말많은 이 環境에 부대끼면서 살지말고 항상말없는 理想을 爲하여 살기로 하자.

理想이야 사람마다 갖었다. 그러나 그理想들이 참된것으로서 萬人에 妥當하느냐 아니하느냐가 問題이다. 사람마다 제 理想이 共通되는 그理想은 아무다른것이 아니고 오직 『참된사람이 된다는것 卽사람다운사람이 된다』는것 그것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며 또 사람다운 사람을 맨들겠다는것이 過去의 聖賢君子와또 歷代의 偉人烈士의 다같은 大理想이었었다. 참된사람이 어떠한 것인가에 對한 定義는 哲學家에게 뭇기로하거니와 여기선 다만 참된사람이 될수있는 그方法을 말해두기로 하자

첫째로 우리는 理性의 批判은 기루워야만된다. 理性의 批判이 없는데선 事物에 對한 是非善惡을 바로 알수없을것이며 또 그로因하야 善者과 惡子가 다가치 橫行할것이다. 善者엔 상을주며 惡子엔 嚴罰을주는것은 善者를 더 善하게맨드는것일 同時에 다시 惡者를 善者가 되게하는 方法이다. 둘재로는 우리는 良心의 反省을 힘써야만 될것이다. 제 父母를 배반하고도 良心을 갖은

체하며 제子孫을 亡쳐주고도 良心이있다고 主張하는것을 볼때 우리는문득 나는 생각이 良心이 무슨必要가 있으랴한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自己의 無知한 私慾에 끄을려 自己의 惡을 良心으로 假裝하는것은 人心이 아니라 獸心이며 또 正心이 아니라 邪心이다. 現在에있어서 良心은 저 年齡마는 志名人士들 에서보다 오히려 젊은 靑年들에게서 더찾어볼수있다. 그럼으로 良心은 年齡과 反比例인 狀態이다. 冷靜한 理性으로 批判하며 純眞한 良心으로 反省할때에는 우리의 大理想인 참된사람이 된다는것은 차차 實現되고 말것이다. 끝